

농촌지도, 농촌사회교육과 지역사회개발

정지웅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Agricultural Extension, Rural Adult Educat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Ji Woong Cheong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 Seoul National Univ.

Summary

This paper attempted to describe the relationships among agricultural extension, rural adult educat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which has developed as a disciplinary major (ag. extension in 1971, rural adult education in 1990 and community development in 1997) at the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Reviewing the related literatures and observing the practical rural develop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conclusion was made in such a way that agricultural extension - rural adult education - community development be natural series of disciplinary development process as well as practical development in industrializing and urbanizing country like the Republic of Korea.

I. 서론

1957년부터 미국의 영향에 의한 민주적 농촌지도 사업이 국가 공공 사업으로 시작되었고, 1960년대에 농업계 대학에서 하나의 선택 교과목으로 부여한 바 있던 '농촌지도론'이 하나의 학문으로 정착되기 시작한 것은 1971년 3월부터 서울대학교 농과대학(현재는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교육학과 내에 농촌지도교육 전공(Agricultural Extension Major)을 새롭게 설치하고 학생을 별도로 선발하면서 부터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전공은 중등 농업교사 양성을 주목적으로 해 왔던 종래의 농업교육학과의 기능을 확대하여 교사 양성의 기능은 농업교육 전공에서 계속하였고, 새로 시작한 농촌지도교육 전공에서는 주로 농민과 농촌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지도사업과 사회교육을 담당할 지도 요원의 양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1990년 3월부터는 어떤 체제의 변화없이 단순히 '농촌지도교육 전공'을 '농촌사회교육'(Rural Adult Education)이라 그 명칭을 바꾸면서 학문과 실제의 영역을 더욱 넓히게 되었던 것이다. 그 후 다시 1997년 3월부터는 학부 중심의 체제 개편에 따라 농업경제학과와 농촌사회교육 전공을 통합하여 '농경제사회학부'란 새로운 체제를 이루게 되었고 대학원과정에서의 전공명칭을 '농촌사회교육'에서 '지역사회개발'로 바꾸기로 합의하고 제안하기에 이른 것이다. 종래의 농업교육학과와의 분리 때문에 농촌사회교육 전공은 그 명칭에 '교육'을 포함시키기 어려워 그 명칭을 '농촌사회학' 또는 '지역사회개발'로 바꾸도록 제안되었고 학문의 기초보다는 학위취득자나 졸업생들의 진로를 고려하여 후자로의 합의를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이 행정 진용의 독려, 전공 교수들의 합의, 대학원 및 학부 학생들과의 합의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

만, 과연 이러한 세 영역간의 학문적 맥락이나 실제적 발전 과정과 일치하는 것일까 하는 점에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아, 이 글의 주제를 고찰하기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첫째, 농촌지도 - 농촌사회교육 - 지역사회 개발의 발전 과정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밝혀 보고, 둘째, 이 세 용어에 대한 학문 및 실재상의 공통점을 추출하며, 셋째, 이 세 분야간의 차이점을 찾아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탐구를 위하여 관련 문헌을 참고로 하였고, 관련 학문의 동향 고찰과 필자의 체험이 바탕이 되었음은 물론이고, 미국을 중심으로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하는 한국유학생과 1997년 8월 토론토에서 열린 미국농촌사회학회 제 60년차 학술발표대회에 참여한 석학들과의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였다.

II. 농촌지도 - 농촌사회교육 - 지역사회개발의 발전: 이론적 근거와 실제

어느 나라에서나 농촌지도는 “그 규모로 보나 역사 및 전문성으로 보아 가장 크고 체계화된 사회교육” (정지웅 외 1986:279)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농촌지도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학문으로서의 ‘농촌지도론’으로 체계화 한 최민호도 그의 저서인 ‘농촌지도론’ (1994)의 부제를 ‘농촌사회교육적 접근’으로 규명하면서 농촌지도를 농촌사회교육과 동일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농촌지도와 농촌사회교육이 그 대상면에서는 차이가 없으며 내용면에서 농촌지도는 새로운 농업 기술의 보급, 생활 개선 지도 및 농촌 청소년 교육에 역점을 두는데 비해, 농촌사회교육은 이 보다 약간 범위가 넓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농촌 주민이 비농가인 경우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그 지도내용도 농업기술 중심으로부터 벗어나 넓어지고 있고, 또 ‘지도’란 어휘가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어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농촌지도’에서 ‘농촌사회교육’으로 발전된 것은 민주화, 산업화의 현대 사회 발전 추이와 보조를 같이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의 농촌지도사업 체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미국의 농촌지도사업은 원래 링컨대통령 재임시(1866) 제정, 공포된 Morrill법에 의하여 정부가 필요한 토지와 운영 경비를 지원해 주면서 설립, 운영하게 한 농과대학 중심의 주립대학(Land-grant colleges)으로 하여금 주된 책임을 부여하여 왔다. 즉, 각 주에 하나씩 지정된 주립대학으로 하여금 그 주 내의 농민들에게 새로운 농업 기술을 보급하고 농가 주부에게 생활 개선 지도사업을 펴기도 하며 농촌 청소년들에게 4H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그러한 농과대학 중심의 농촌지도사업(cooperative extension service)을 전개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 지도사업도 최근(1995년)에 그 명칭을 CSREES(Cooperative State Research, Education and Extension Service)로 바꾸면서 그 내용과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때 이러한 미국식의 체제를 그대로 시도한 적도 있긴 하지만 잠시뿐이었고, 농림부의 외청인 ‘농촌진흥청’으로 하여금 농업 연구와 함께 농촌지도사업을 전담케 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틀과는 달리 사회교육적인 접근을 행정력보다 덜 강조하고 있는 경향은 있으나 그 사업이 사회교육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는 듯 싶다.

다음은 농촌지도나 농촌사회교육의 새로운 발전 추이로서의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관심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개발이 1948년 이후 UN이 중심이 되어 세계 각국에 정책의 하나로 채택할 것을 권장하면서 농촌지도사업에도 이를 새롭게 반영시킨 흔적이 있다. 미국의 농촌지도사업에서는 1958년에 처음으로 지역사회 개선(community improvement)이 농촌지도사업의 중점적인 사업 분야의 하나로 공식적인 인정을 하였고 (Mayo & Marsh 1966: 293), 이러한 추세는 세계 여러 나라에 영향을 주었다.

Mosher는 한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보통

농촌지도 사업은 농업과 생활 개선에만 중점을 두는데 반하여 지역사회 개발에서는 건강, 교육, 교통문제 등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를 다룬다고 하나, 이들은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는 사실상 별로 크지 않다는 견해를 보이면서도 약간의 차이를 서술하고 있다. 즉, 이 두 부문간의 차이는 “지역사회 개발이 개개인 또는 개인 행동보다 사회집단에 더 강조를 두는데 반하여, 농촌지도는 역사적으로 개개 농민의 기술 변화에 일차적인 역점을 두며, 농촌지도에서 다루는 집단 활동은 개개인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부차적인 수단이 되어 왔다”(A. T. Mosher 1958: 56)고 하면서 그 공통성과 차이점을 밝힌 바 있다. 한편 Smith와 Wilson은 이 두 개념 사이의 관련성을 “이상적으로 말하여 지역사회개발은 지역사회 내에 사는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종래의 농촌지도사업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효과를 거두기 힘들었던 지역사회의 많은 개인과 집단을 지역의 개발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만들었다. 지역사회 개발에 있어서의 지도력은 지도원들이 한층 더 지역사회의 주민 편에 서서 그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활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Smith & Wilson 1970: 362)고 하면서 지역사회 개발이 농촌지도를 민주화시키는 새로운 방향이 됨을 밝히었다. 또 Phifer와 List(1971)는 농촌지도의 새로운 부문으로서의 지역사회 개발(Community development: A new dimension of extension)을 설명하는 소책자를 펴내기도 하면서 농촌지도와 지역사회개발의 긴밀한 관계 또는 농촌지도의 새로운 방향으로서의 지역사회 개발의 위상을 부각시킨 바 있다. 또 Roberts(1979)는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사회교육적 접근을 체계화하면서 사회교육자들의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 바 있다. 그리하여 미국에서 1970년부터 출간되기 시작한 ‘지역사회개발학회지’(Journal of the Community Development Society)의 1980년대말까지의 기고자 가운데 농촌지도 전문가가 30% 이상(Christenson 1989: 31)이 되

었고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보아 농촌지도 - 농촌사회교육 - 지역사회 개발의 발전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

미국의 농촌지도사업은 최근에 사회의 변화, 즉 농촌의 인구가 감소하고 도시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특히 범죄, 빈곤과 같은 문제에 관심이 커짐에 따라 활동범위를 농촌지역사회에서 도시지역사회로 넓혀 왔다. 예를 들면, 빈곤층의 여성, 유아, 어린이를 위한 경제적인 보조를 해 주는 연방정부의 도시지역 WIC(Woman, Infant, and Child) 프로그램에 주립대학 소속의 지도요원 (Extension Education Agent)이 참여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 지도요원들은 물건 구입시 필요한 기본적 지식과 영양 문제에 대한 교육을 도시 빈민층을 대상으로 매월 또는 격월제로 강의를 하였다. 그러다가 1995년 부터 extension education이 그 명칭을 CSREES로 바꾸고 21세기를 대비한 dynamic change agent로서의 역할을 다짐하면서 지역사회 개발요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CSREES는 미연방 정부의 농무성과 각 주의 여러 land-grant institutions과 130개 이상의 대학, 59개의 농업연구소, 57개의 cooperative extension services와 함께 일한다. 즉 CSREES는 종래의 단순한 농촌지도사업을 벗어나 그 주의 통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여러 관련 업무부서를 두고 그 주가 필요로 하는 각각의 기능을 분담, 통합하는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 CSREES의 주된 임무는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와 인류를 이롭게 하는 식량과 농업과학 그리고 이와 관련된 환경과학, 인문과학 등과 연관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 농촌지도와 사회교육을 추구하는 데 있다. 또한, 21세기를 위한 CSREES의 임무중에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지역사회라는 것이다. 과거의 식량생산 위주의 사회에서는 그 사회의 주된 관심이 식량생산이었으므로 당연히 Extension의 초점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지도나 생활 개선에 치중했던 것이나 이제는 그 주 지역이 당면하는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을 해야 할 것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 넓게는 농촌사회학이나 지역사회 개발학에서 좁게는 지도사회학(Extension Sociology)에서도 다루며 발전시키고 있기도 한 것이다.

이제 농촌사회교육이라는 학문이 미국에서 처럼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학부제라는 대명제 아래 많은 대학의 농업교육학과와 명칭도 Department of Human and Community Development)로 바꾸고 기존의 농경제학과와 학문적인 접목을 시도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의 경우, 농촌지도학과는 따로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기능을 CSREES Extension Services Department에서 맡고 있는데 주로 학교와 지역사회간의 연계를 담당하고 있다. 농촌지도에 대한 강의는 주로 농업교육학과나 농촌사회학과 및 지역사회 개발학과 교수가 맡고 있다. University of Missouri -Columbia의 경우 Extension Services Department에서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지역사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면, Community Development Academy(CDA)에서 특별히 일년에 2회 실시하는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을 Extension Services Department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학교도 이 강좌를 수강할 경우 농촌사회학과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CDA에 의한 교육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담당업무를 Extension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고, 그 강의의 성격이 지역사회 개발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농촌사회학과에서 그 과목을 농촌사회학과에서 개설한 과목과 동일한 학점을 부여한다는 것이다(동 대학 박사과정 유학생 이성의 말).

우리 나라의 농촌지도에서도 그 발전 과정으로 보아도 그러한 추세의 일면을 찾아볼 수 있다. 1957년에 농촌지도 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족된 '농사원' 과 1958년말부터 출범한 공공 지역사회 개발사업을, 1962년에 군사 정부에서 통합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오는 '농촌진흥청' 을 발전시킨 것이다. 물론 이 통합이, 범위가

넓은 지역사회 개발사업을 '농촌지도체제 일원화 정책'의 명목으로 기존의 농촌지도사업에 흡수시키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농촌지도와 지역사회 개발간의 긴밀성을 입증한 예라 볼 수 있다. 학문적인 발전 면에서도 농촌지도를 전문적으로 다루던 서울대학교의 농업교육학과 농촌지도 - 농촌사회교육 전공에서 지역사회개발을 그 전문 영역의 하나로 발전시킨 것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김성수 외, 1991; 김태호, 1990; 이종만, 1991; 정지웅, 1993; 최민호 외, 1989 등 참조)

III. 농촌지도, 농촌사회교육, 지역사회 개발의 공통점

이 세 부문의 첫째 공통점은 일정한 지역의 성인 남녀를 위한 비정규적 사회교육에 역점을 둔다는 점이다. 농촌사회교육은 물론이고, 농촌지도도 지도교육(extension education)이란 말로도 쓰이고 있고, 지역사회 개발의 학문적 기초를 다짐한 영국의 Batten(1957)과 미국의 Biddle과 Biddle(1965)도 교육학자였으며 교육학에서 수 많은 학자들이 다루는 지역사회교육(communitiy education)이나 학습공동체활동 등이 지역사회 개발과 사회교육의 불가분적 관계를 쉽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Cunningham, 1994; Cheong, 1987; Boo, 1985; Brookfield, 1984; Boone et al, 1981 등 참조)

둘째 공통점은 세 분야가 모두 농촌 사회에 보다 더 큰 비중을 둔다는 점이다. 지역사회 개발은 물론 도시 지역에서의 개발을 다루기도 하고 농촌지도나 농촌사회교육이라 하여 도시에서의 사업수행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지만 대다수의 국가에서 이 세 사업들이 농촌 지역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 큰 이의를 가지지 않는다. 지역사회 개발이 우리 나라의 새마을 운동이 그러했듯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사회에 역점을 두고 균형 발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부 특수지역의 범죄 행위가 심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세계적으로 보아 도시에 비하여 농촌이 취약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개발이 농촌 개발과 동일시될만큼 농촌을 더욱 많이 다루는 것이다. 그 때문에 농과대학의 사회과학 관련 학과에서 지역사회 개발을 전공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정을 받기도 하는 것이다.

셋째는 세 분야의 연구 과정이나 실제 사업 수행에서 다 같이 대상자(보통 지역사회 주민)들의 참여를 무엇보다 강조한다는 점이다. 연구의 대상자로서가 아닌 주체자 또는 참여자로서의 지역사회 주민의 입장을 강조한 참여연구법을 체계화한 국제사회교육협회(ICAE)가 이 연구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두 분야를 사회교육과 지역사회 개발이라 지칭한 바 있고, 세계적으로 일반 사회과학계에서 질적 연구와 실천 연구를 강조하던 학자들이 이 연구 방법을 유행처럼 적용하면서 응용사회과학의 한 부문인 농촌지도와 농촌사회교육에서도 이러한 참여적 기법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이 참여연구의 방법을 보면 그 방법이 연구의 방법인지 조직화, 교육, 자체 평가와 같은 실천 행위인지를 구별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며 주민들이 합의에 의해 행하는 행동들이 변화를 위한 실천 행위도 되고 거기서 나온 기록물이나 작품들이 모두 연구 결과물로도 쓰이기도 하는 것이다.

넷째, 세 분야가 모두 어떤 한 학문적인 계보를 가지고 발전된 것이 아니라 다학문적 접근의 특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농촌지도가 각종 농업 기술분야, 농업경제, 농업교육, 농촌사회 등의 배경을 가지고 발전되었고, 사회교육의 계보로 보아지기도 한 인상을 주는 농촌사회교육도 사실은 일반 사회교육과는 달리 농촌지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와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다학문적 성격을 띄고 있다. 농민에게 보건 교육을 실시하면 보건학이나 간호학이, 여가 선용 교육을 시키면 사회체육이나 각종 기술교육이 두루 동원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 개발이나 농촌개발은 특히 말할 것도 없이 다학문 또는 종합학문으로서의 전형적인

위치에 있다. 사회과학만이 아니라 보건, 건축, 조경, 水理/토건, 적합기술(appropriate technology)과 같은 자연과학은 물론 심지어는 신학이나 선교학(기독교 지역사회개발)과 같은 특수한 분야에서까지도 다루고 있는 것이다. 필리핀대학교(로스바뇨스캠퍼스) 농과대학의 농업교육/농촌연구학과(Department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Rural Studies)에서는 대학원 석, 박사 과정에서 농촌지도와 농촌사회학 및 지역사회개발전공을 따로 인정하면서도 그 교과목이나 교수들의 전공을 보면 사회학, 인류학, 심리학, 교육학, 행정학 등 다양하고, 이웃 학과인 농업경제학과와 발전 커뮤니케이션학과 등 여러 학과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IV. 농촌지도, 농촌사회교육, 지역 사회 개발의 차이점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농촌지도와 농촌사회교육, 지역사회 개발의 세 분야는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많다. 그러나 그 용어가 다른 만큼 그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세 용어간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 그 차이점을 탐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의 차이점은 세 분야가 가장 긴밀한 관련 학문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농촌지도는 농업 기술과 생활과학이 강조되는데 비하여, 농촌사회교육은 그 관계가 필연적인 것은 아니고 사회교육학의 한 범주로서 농촌 지역에서 전개되는 사회교육을 넓게 다룬다. 그리고 지역사회개발에서는 농업기술과 생활과학의 기초를 가지고 있으면 유리한 것은 틀림없지만 농업기술과 생활과학 이외에도 교육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커뮤니케이션학, 경제학, 행정학, 보건학 등을 전공하거나 이들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의 복수 전공을 배경으로 하면서 지역사회 개발학을 전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역개발의 경우는 농촌지도나 농촌사회교육보다는 지역사회 개발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분야이고 경제학, 지리학, 지질학, 토목공학, 조경학과 같은 물리적 자원의

활용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가짐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의 차이점은 주민 접근 전략 면에서 농촌지도에서는 농장 및 가정 방문과 같은 개인적 접촉을, 농촌사회교육에서는 개인적 접촉과 집단적 접촉 및 대중적 접촉을 때와 장소에 따라 융통성 있게 다 쓰며, 지역사회 개발에서는 지역사회 개발위원회의 조직과 운영과 같이 주로 집단적 접촉이나 조직적 접근 방법을 더 많이 쓴다는 점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차이이지 농촌지도라하여 집단적인 접근을 소홀히 한다거나 전시회나 농업 기술 공보와 같은 대중 홍보의 방법을 쓰지 않는 것은 전혀 아니다. 마찬가지로 지역사회개발에서도 어떤 집단적 결정을 하기 전에 설득을 하기 위한 개인적 접촉이 매우 중시되기도 하는 것이다.

셋째는, 세 분야가 그 대상이 되는 주민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즉, 농촌지도는 교육자적 시각에서 교육 대상으로서의 농민과 농가 주부 및 농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러한 지도를 펴는 전문직 인력을 지도사, 지도원, 지도요원(extension educator, extension worker, extension agent)이라 부른다. 농촌사회교육에서는 그 담당자를 교사라고도 칭하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학습도우미, 촉진자(learning mentor, facilitator)란 말을 더 많이 쓰면서 권위적 위치의 성인 교사의 위치로부터 민주적 학습 촉진자의 자리 매김을 강조하고 있다. 또 지역사회개발에서는 그 전문요원을 교사로 칭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지역사회 개발요원(community development worker/agent), 사업조정관(program coordinator)이라 부르면서, 사업 추진의 주체자는 지역사회 주민이고 그들을 전문적으로 돕는 개발요원은 그의 사업 수행 책임과 조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이지 지도사에게 민주적 조정이나 사업 촉진의 역할이

없는 것은 아니고, 지역사회개발요원에게 교육자적, 지도적 역할이 간과된다는 것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점차 농촌과 도시가 통합되고,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제까지는 지역사회 개발에서 농촌, 농업, 농민을 중시하여 왔지만, 앞으로는 지역사회 개발에서 농촌지도와 농촌사회교육에서 별로 다루지 않은 도시 지역의 발전문제를 많이 다루게 될 것을 예견할 때, 지역사회 개발에서 도시까지를 다룬다는 점에서의 차이와 이점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학에서도 과거에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 사회의 균형 발전을 위해 농촌사회학을 강조해 왔지만, 앞으로의 농도통합과 도시화의 추이로 보아 도시의 사회문제를 포함시켜 다루는 지역사회학이 더욱 발전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논리가 될 것이다.

V. 맺는 말

이 글에서 농촌지도와 농촌사회교육 및 지역사회 개발이 그 용어와 학문적 배경에서 얼마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같은 맥락을 가지고 발전해 온 하나의 학문적 흐름으로 볼 수 있는 점이 더 많다는 사실을 밝혀 내었다. 즉, 이 세 용어는 학문적으로나 실제 면에서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고, 그 관련성이 다른 어떤 분야와의 관계보다 긴밀하다는 것이 사실임을 밝힌 것이다.

과거에 맨 먼저 발전하기 시작했던 농촌지도는 농촌사회교육으로 발전되었고, 또 앞으로의 지역사회 개발학으로의 발전의 맥을 이어 갈 것이 예상된다. 새로운 학문으로서의 지역사회 개발학에서는 지역사회 개발이란 용어가 나오기 이전부터 탐구되어 온 농촌사회학, 농촌지도학과 농촌사회교육학이 축적해 온 지식 체계

를 토대로 하여 도시까지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 발전, 나아가서는 이상적인 세계화, 지구촌화의 발전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VI. 참고 문헌

1. 김남선. 1991. 지역사회개발학 개론, 대구: 흥익문화사
2. 김성수 외. 1991. 농촌·농업교육의 방향, 서울: 교육과학사.
3. 김태호. 1990. "전환기 농촌사회교육의 위상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2(3):77-83.
4. 이종만. 1991. "평생교육 이념하에서의 농촌사회교육: 그 위상과 발전방향",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3(4):19-27.
5. 이한기, 김성수. 1988.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실행모형의 설정",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0(1):19-29.
6. 정지용. 1993. "변환기 농촌사회교육: 학문적 발전과 그 방향",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5(3):30-44.
7. 정지용. 1985. "농촌지역사회개발과 농촌사회교육", 한국농업교육학회지 17(2):224-229.
8. 정지용. 1986. "농촌개발을 위한 다학문적 접근", 한국농업교육학회지 18(2):1-11.
9. 정지용. 1976. "농촌사회교육의 현황과 문제", 계명대학 지역사회교육연구소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교육의 역할, 13-19.
10. 정지용, 임상봉. 1997. 지역사회개발학, 서울대출판부.
11. 정지용, 최병익. 1992. 농촌사회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2. 주 권. 1970. 지역사회 개발과 농촌근대화, 서울: 부림출판사.
13. 최민호. 1994. 농촌지도론: 농촌사회교육적 접근 (개정판), 서울대출판부.
14. 최민호 외. 1989. 종합농촌개발론: 요구분석적 접근의 이론과 실제, 서울대출판부.
15. Batten, T. R. 1957. Communities and their development,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6. Batten, T. R. 1962. Training for community development: A critical study of method,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7. Biddle, William W. and Loureid J. Biddle. 1965. The community development process: The rediscovery of local initiative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lson Inc.
18. Boo, Mary R., and Decker, Larry E. 1985. The learning community, Washington, D. C. : National Community Education Association(NCEA).
19. Boone, Edge J., Ronald W. Shearon, Estelk E. White, and Associates. 1981. Serving personal and community needs through adult education, San Francisco : Jossey-Bass Publishers.
20. Brookfield, Stephen. 1984. Adult learner, adult education, and the community, New York and London: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Press.
21. Cheong, Ji Woong, ed. 1987. Promising Education for Community Development: Report of Multi-disciplinary Seminar on the Educational Components of Saemaul Undong,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2. Christenson, James, A. 1989. "Themes of community development", in James A. Christenson and Jerry W. Robinson, eds., Community development in perspective, Ames: Iowa State University Press, 26-40.
23. Cunningham, P. M. 1994. <Community educat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in Torsten Husen & T. Neville Postlethwaite, eds.,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Education, 2nd ed. Oxford, U. K.: Elsevier Science Ltd., 900-907.
24. Kapuku, Mudipanu. 1991. A Comparative Study of Farmers' Education in Korea and Zaire (1960-1990): A Lifelong Learning Perspective on Educational Reform for Rural Development, Unpublished Ph. D.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25. Mayo, Selz, C. and C. Paul Marsh. 1966. "Community development", in H. C. Sanders, ed. Cooperative extension service,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In.
26. Mosher, A. T. 1958. Varieties of extension educat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Ithaca, New York: New York State College of Agriculture at Cornell University
27. Nam, Seung Hee. 1988. The Role of Nonformal Education in Community-Based Integrated Rural

- Development(CBIRD) in South Korea: A Configurational Analysis, Unpublished Ph. D. Thesis, Indiana University.
28. Phifer, Bryan and Fred List. 1971. "Community development: A new dimension of extension", Columbia: University of Missouri Extension Division.
29. Ramirez, Ricardo. 1990. "The application of adult education to community development",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25(2):131-138.
30. Riezen, Karsten Van. 1996. "Non-formal educat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Improving the quality", Convergence 39(1):82-94.
31. Roberts, H. 1979. Community development: Learning and action,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32. Roeling, Niels. 1993. "Strategies of Rural Adult Education in the Netherlands: Present Situation, Problems and Future Directions",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5(3):1-17.
33. Smith, Clarence B. and Wilson, M. C. 1970. The agricultural extension system of the United States, New York, N. Y.: John Wiley & Sons, Inc.